

음압 병실 속에서 정신질환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

22000093 김성은
22000120 김신
22000338 서승언
22000770 최혜림

Contents

- 발표 목적
- 첫번째 문제점 : 상태 악화
- 두번째 문제점 :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
- 세번째 문제점 : 치료 병행 저하

발표 목적

코로나19에 정신질환자들 고통...대면상담 어려워 증세 악화

송고시간 | 2020-04-18 10:15



권선미 기자

| 조현병·우울증 환자 등...전문가 "전화 심리치료는 한계"



정신과 상담

[Yonhap News TV 제공]

(서울=연합뉴스) 권선미 김슬 기자 =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(41)씨는 최근 조현병 환자인 친언니가 자주 발작을 일으키자 언니를 입원시키려고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을 모두 알아봤다. 그러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. 언니의 증상은 계속 심해졌다. 수차례 돌발 행동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.

최씨는 "언니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신경안정제만 맞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"며 "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국민청원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"고 말했다.

첫번째 문제점

정신 질환 증상 악화

- 소음이란?
원치 않는 모든 소리
- 지속적인 소음의 영향 :
불안, 감정 상의 스트레스, 신경성 불만, 두통,
불안정성 등의 문제점



정신 질환 증상 악화 (기계 소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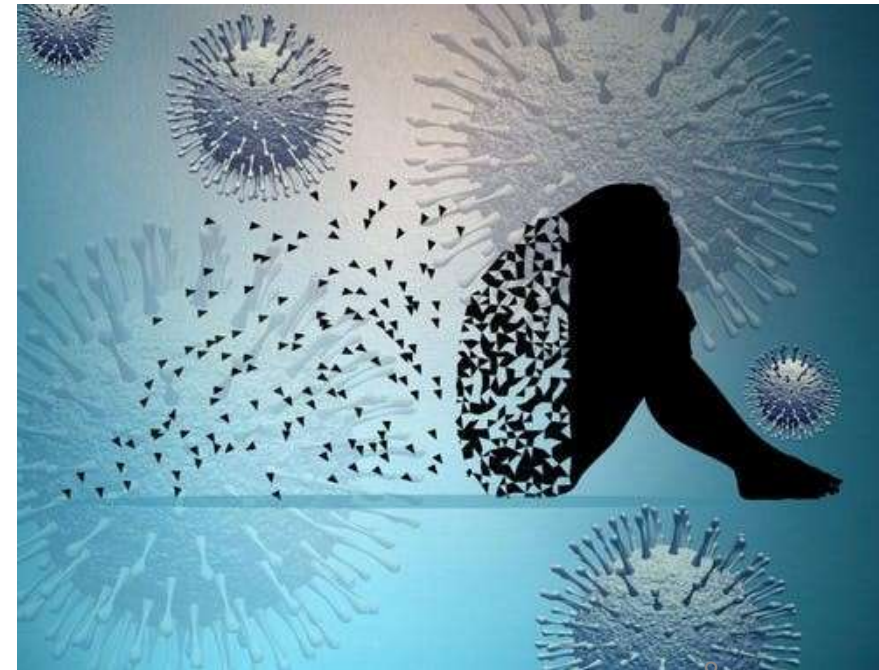


음압기 소음



음압 병실을 이용한 일반인 경우

-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중 30%가 정신과 진단
- 일반 환자 80명 중 24명이 공황 장애, 우울증 등 진단
그 중 16명은 항불안제 등 정신과 약물 처방
- 미국의 경우 - 무기력, 의욕 저하 등 경험 비율
8.5%에서 28%로 3배 이상 증가



정신 질환 환자의 경우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3배 이상 더 심각함

- 불안, 우울증, 스트레스 반응 점수가 일반 환자보다 정신 질환 환자가 훨씬 높게 나옴
- 특히 건강에 대한 심각한 걱정, 분노, 충동, 강렬한 자살 충동이 약 3배 이상 높게 측정
- 1/3 이상이 코로나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(PTSD) 진단 기준에 충족
1/4 이상이 중증의 불면증으로 고통 받음

두번째 문제점

긴급 상황 대처

정신질환자 코로나19 무방비 "전용병동 부족, 대책 마련해야"

보건의료노조 "선별진료소 의료진 감염 우려, 환자에 전파될 수도"



- 환자와 의료인 간에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
- 환자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긴급상황

세번째 문제점

치료 병행 저하



음압병실 간호사들로부터
유리벽에 글을 적어 상황을 전달



김성은

증상 악화 > 치료 병행
저하 > 위급 상황 대처

최혜림

증상 악화 > 위급 상황
대처 > 치료 병행 저하

김 신

증상 악화 > 위급 상황
대처 > 치료 병행 저하

서승언

증상 악화 > 위급 상황
대처 > 치료 병행 저하

출처

발표목적 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417158800004>
음압병실 소음 영상자료 <https://youtu.be/fK3yUBi23iU>
일반인 정신질환 악화 <https://www.nmc.or.kr/nmc/main/main.do>
정신질환 악화 <https://www.sciencedirect.com/science/article/pii/S0889159120306267?via%3Dihub>
음압병실의 정의 <https://m.blog.naver.com/i-doctor/221831915096>
찢어진 방호복 사이로 감염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-hmBniKqsGI>
"오늘은 좀 지치네요" 코로나19 환자로 숨 돌릴 틈 없는 간호사들
<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78406>
코로나19에 정신질환자들 고통...대면상담 어려워 증세 악화
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417158800004>



**THANK
YOU!**